

제32회(2020년) 아산상 부문별 수상자 현황

부 문	수상자(단체)	주요 공적내용
아 산 상	여혜화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소속 수녀로 19세에 수녀가 된 후 대구와 창원, 소록도 등에서 간호사로 활동하다가 1993년 우간다에 파견되어 27년간 봉사해오고 있음. 1995년 우간다에 의료기관의 역할을 하는 헬스센터와 유치원, 초등학교를 설립하였는데, 헬스센터는 산과와 치과, 에이즈센터가 특화된 의료기관으로 발전하였고 초등학교는 국가고시 성적을 상위권으로 유지하는 명문학교로 인정받아 우간다뿐만 아니라 케냐, 콩고 등지에서도 입학하고 있음. 여혜화 수녀는 2018년부터 수녀회의 우간다 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헬스센터와 학교 운영, 빈민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의료봉사상	민형래	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과 동시에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사막지역으로 떠나 19년간 의료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현지 이동진료 중 열악한 환경의 주민들을 만난 후 사막지역의 유일한 병원 설립을 결심하였고, 2013년 개원한 병원은 현재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안과 4개 진료과에 7명의 전문의, 50개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발전해 월 평균 2,500여명의 주민을 진료하고, 매달 100여건의 수술을 시행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사회봉사상	성모자애원	프랑스 출신 남대영 신부(본명 루이 델랑드, 1895~1972)에 의해 1936년 설립된 성모자애원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공적인 복지체계가 부재하던 시기에 전쟁고아, 노인, 장애인, 한센인과 같은 소외계층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왔음. 지난 84년간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복지사업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가족정신을 실천하라'는 설립자의 정신을 이어받아 현재에도 노숙인, 노인, 장애인 시설, 무료급식소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며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복지실천상	김연희	동명아동복지센터에서 28년간 근무하며 아동복지와 관련된 각종 매뉴얼을 개발하고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국내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해왔음.
	박영덕	한국미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부센터장을 역임하며 국내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음.
	황덕경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으며, 미디어 영상물의 정보 접근권 강화, TV 시청권 보장 등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음.
자원봉사상	권혁기	노인대학 운영을 통해 노년층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해왔음.
	김옥이	가위사랑봉사단 단장으로 지난 36년간 요양병원과 경로당 등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해왔음.
	박진관	건축설비분야 국내 1호 명장으로, 건축설비 봉사단 단장을 역임하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수리 봉사활동을 이어왔음.
효행·가족상	김순래	남편 사별 후 시어머니를 홀로 봉양하면서, 몸이 불편한 자녀가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돌보았음.
	모마리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여성으로, 청각장애가 있는 남편과 결혼하여 연로한 시부모와 가족들을 부양하였음.
	진선남	장애가 있는 남편과 자녀를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가장의 역할을 해왔으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에도 꾸준히 참여해왔음.